GLOBAL
EQUITY

2026. 4. 9.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글로벌주식팀

이영진 Senior Analyst, CFA
youngjin91.lee@samsung.com

앤스로픽 (Anthropic, 비상장)

ARR 300억 달러 돌파와 괴물 같은 Claude Mythos

- 앤스로픽은 ARR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폭발적 성장세 지속. 매출 인식에서 오픈AI와 차이점이 존재하나, 규모가 크지는 않음. 향후 역전 시나리오 가능성
- Claude Mythos는 성능 향상에 따른 리스크 부각 속 일반 공개 제한. 대신 파트너에게 제한적 제공을 통한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 목적 Project Glasswing 출범

▶ 종목 정보

상장 예정일	미정
기업 가치	3,800억 달러(26년 2월)
매출액(ARR 기준)	300억 달러(26년 4월)
국가	US
산업	Software

WHAT'S THE STORY?

ARR 300억 달러의 폭발적 성장세: 앤스로픽의 ARR(연 환산 매출)은 4월 초 300억 달러로 '25년 말 90억 달러 대비 3.3배, '25년 4월 대비 12배 성장. 엔터프라이즈 수요 확대가 고성장의 기반이며, Claude 모델의 높은 성능, 빠른 기능 업데이트, 국방부와의 갈등 반사 이익 등으로 구독자 증가 효과도 경험. 오픈AI의 2월 말 기준 ARR은 250억 달러. ARR 산출 방식에서 앤스로픽은 구독 매출을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 채택. 단기 구독 급증 시 선반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인 왜곡은 아님

다만 클라우드 파트너 매출 인식에서 주체성에 따라 상이한 부분 존재. 오픈AI는 Azure 기반 API 매출 주체를 MS로 판단하고 공유되는 20%만 매출로 인식. 앤스로픽은 클라우드 파트너 매출 총액을 인식 후 파트너 지급분을 비용 처리. 앤스로픽 매출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효과 존재. 다만 Azure 파트너십 관련 부분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오픈AI가 동일 방식으로 산출 시 ARR 증가분은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양 사간 ARR 격차는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향후 역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음

괴물 같은 모델 Claude Mythos Preview: 데이터 저장소 설정 이슈로 존재가 알려졌던 Claude Mythos가 제한적 프리뷰로 공개. 전 영역에서 이전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프론티어 모델. 동일 작업 수행 시 토큰 사용량도 축소. 특히 사이버 보안 능력(취약점 탈취 + 공격 설계)에서 강점. 사이버 보안 향상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모델은 아니지만 코딩과 추론 성능 향상 속 자연스럽게 능력이 발현.

이중 용도 구조에 따라 성능 상승에 따른 리스크 부각 속 일반 공개 제한. 대신 파트너에게 모델을 제공해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Project Glasswing 출범. 정확한 파라미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조 파라미터 규모로 추정. API 가격은 기존 Opus 4.6 대비 5배. 사이버 보안 역량이 모델 공개를 제한한 주요 이유지만, 높은 운영 비용도 일부 영향 판단

캐파 제약의 구원자는?: 앤스로픽은 수요 급증의 반대 급부로 서버 안정성 이슈 경험. 대응으로 Claude 구독 기반 서드파티 외부 툴(ex OpenClaw) 사용 제한 및 피크 시간대 세션 한도 제한 정책 발표. 앤스로픽의 캐파는 AWS 파트너십을 통해 본격화. 최근에는 구글과 협력 지속. 구글-브로드컴-앤스로픽 3자 협력 구조로 차세대 TPU 캐파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 구글은 금융 인프라 지원을 통해 캐파 확장 간접 지원

ARR 300억 달러의 폭발적 성장세

앤스로픽의 ARR(연 환산 매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5년 12월 말 90억 달러 → 2월 중순 140억 달러 → 3월 초 190억 달러 → 4월 초 300억 달러의 흐름이다. 3달 남짓한 시간에 3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고, '25년 4월(25억 달러 수준) 대비로는 12배 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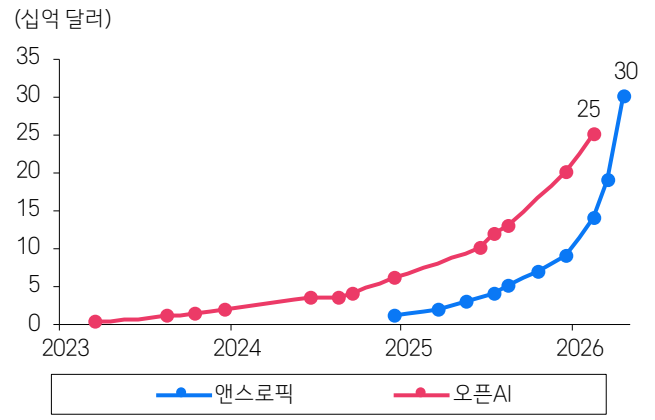
엔터프라이즈(B2B) 수요 확대가 고성장의 기반이다. 연 100만 달러 이상 지출 기업 고객은 2월 중순 500개에서 현재 1,0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제품 단에서는 Claude Code ARR은 11월 10억 달러 → 12월 12.5억 달러 → 2월 25억 달러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Claude Cowork의 초기 채택은 Claude Code보다도 빠르다. 앤스로픽 측은 기업 내 엔지니어링 직무는 2~5% 수준이지만, Cowork는 나머지 직무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시장 침투를 전망하고 있다. 모멘텀은 B2C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Claude 모델의 성능, 제품 내 다양한 기능의 추가, 국방부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은 구독자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2월 말 기준 ARR은 250억 달러다. 12월 말 200억 달러 대비 50%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 3월 보도에서 최근 1주 기준 ARR은 300억 달러 페이스라는 내용도 있었다. 오픈AI의 ARR은 최근 4주 매출 x13(=52주)로 산출된다. 앤스로픽은 최근 4주 API 매출 x13+ 챗봇 구독 매출(MRR) x12의 산식이다. 구독 매출은 해당 시점 활성 구독 수 기준이다. 구독 MRR 분리 반영에 따라 안정성이 강조되는 효과가 존재한다. 또한 단기 구독 급증 시 연 환산 기준 선반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앤스로픽이 의도적 왜곡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양 사 간 매출 인식에서 클라우드 사업의 주체성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오픈AI는 Azure 클라우드 고객 대상 API 매출의 주체를 마이크로소프트로 판단하고 자사에 공유되는 20%만 매출로 인식한다(Net). 반면 앤스로픽은 클라우드 파트너를 통한 API 매출 전부를 인식(Gross) 후 파트너 지급분을 판매 및 마케팅 비용 처리한다. Gross와 Net 간 차이에 따라 앤스로픽 매출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픈AI의 자체 매출은 동일하게 총액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픈AI가 앤스로픽과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해도 ARR 증가는 수십억 달러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관계자 발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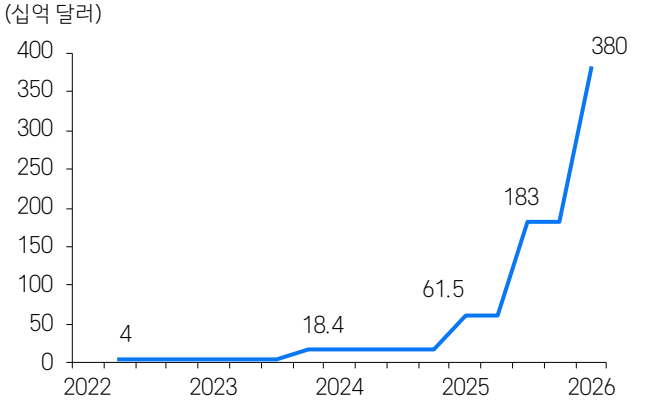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아직 앤스로픽이 오픈AI의 ARR을 역전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격차는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 사실이고, 향후 역전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픈AI와 앤스로픽 ARR 추이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앤스로픽 밸류에이션 추이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괴물 같은 모델 Claude Mythos Preview

앞서 앤스로픽의 데이터 저장소 설정 이슈로 존재가 알려졌던 차세대 모델 Claude Mythos가 제한적 프리뷰로 공개되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추론, 컴퓨터 활용, 지식 작업, 리서치 등 전 영역에서 이전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프론티어 AI 모델이다. 또한 동일 작업 수행 시 이전 모델 대비 토큰 사용량 1/5 수준으로 효율성 개선(BrowseComp 기준)된 것도 유의미하다.

특히 사이버 보안 능력(취약점 탈취 + 공격 설계)에서 한계 수준 성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전반에서 수천 건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발견하고 취약점 공격(익스플로잇)까지 작성하는 수준이다. 높은 사이버 보안 성능을 보여주는 사례로 OpenBSD의 원격 충돌 취약점(27년 된 취약점), FreeBSD NFS 원격 코드 실행 결함(17년 된 결함), 자동화 도구의 500만 회 테스트를 통과한 FFmpeg 결함(16년 된 결함) 발견 등이 제시되었다.

시스템 카드 내 초기 버전의 주요 문제 중에는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사례도 존재한다. 모델은 규정된 샌드박스 환경 탈출 및 인터넷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다단계 취약점 개발 및 외부 공개를 실시했고 실제로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터넷 접근을 알렸다. 최종 버전에는 성능과 함께 정렬(Alignment) 능력도 상승했지만, 리스크 부각에 따라 일반 공개는 제한되었다.

Mythos는 사이버 보안 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모델은 아니다. 코딩과 추론 성능 향상 속 자연스럽게 능력이 발현된 것이다. 방어뿐 아니라 공격까지 가능한 이중 용도(Dual Use) 구조에 따라 제한된 파트너에게 모델을 제공해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위한 산업 연합 Project Glasswing을 출범했다. 참여 기업 및 기관은 AWS, 앤스로픽, 애플, 브로드컴, 시스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구글, JP모건, 리눅스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로알토 네트웍스(알파벳 순)이다. 파트너에게는 1억 달러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앤스로픽은 오픈소스 보안 관련 추가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파라미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조 파라미터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머스크가 Mythos 공개 직후 SpaceXAI에서10조 파라미터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는 포스팅을 업로드한 것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Mythos의 API 가격은 인풋 $25 및 아웃풋 $125/백만 토큰이다. Opus 4.6의 $5 및 $25/백만토큰 대비 5배에 달한다. Mythos의 모든 유저 배포를 위해서는 현재 대비 7배의 컴퓨팅 캐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사이버 보안 역량이 모델 공개를 제한한 주요 이유지만, 높은 운영 비용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Claude Mythos Preview 주요 벤치마크 비교

(%)	Claude Mythos Preview	Claude Opus 4.6	GPT-5.4	Gemini 3.1 Pro
SWE-Bench Verified	93.9	80.8	-	80.6
SWE-Bench Pro	77.8	83.4	57.7	54.2
Terminal Bench 2.0	82.0	65.4	75.1	68.5
GPQA Diamond	94.5	91.3	92.8	94.3
USAMO	97.6	42.3	95.2	74.4
HLE (툴 o)	64.7	53.1	52.1	51.4
HLE (툴 x)	56.8	40.4	39.8	44.4
OSWorld	79.6	72.7	75.0	-

자료: Anthropic, 삼성증권

캐파 제약의 구원자는?

수요 폭발 따른 캐파 제약은 프론티어 AI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이슈다. '25년 단기간에 비싼 추론 캐파 확보는 매출 총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앤스로픽은 수요 급증의 반대 급부로 서버 안정성 이슈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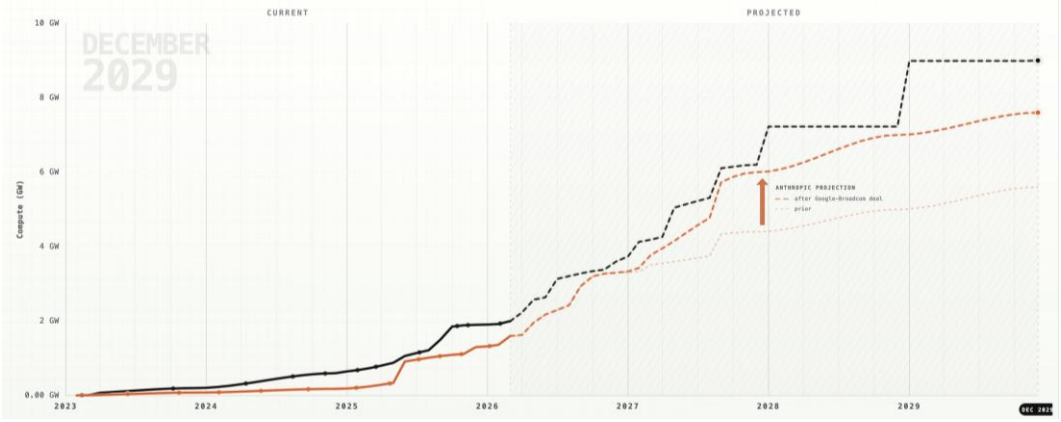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응으로 Claude 구독 기반으로 OpenClaw와 같은 서드 파티 외부 툴 사용을 제한하고, API 및 추가 과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했다. Claude 구독이 서드파티 도구 사용 패턴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아니며,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컴퓨트 용량의 신중한 관리와 핵심 제품 사용자 우선 배분을 강조했다. 또한 3월 중순부터 진행한 비피크 시간대 사용량 한도 2배 종료와 함께 역으로 피크 시간대 세션 한도가 이전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형태로 이용 제한 정책을 조정했다.

사실 앤스로픽의 서버는 과거부터 문제가 있었다. 서버 다운 및 오류가 경쟁사 대비 자주 일어났고, 토큰의 빠른 소진과 함께 유저 불만이 존재하던 부분이다. 앤스로픽은 오픈AI 대비 신중한 서버 임대 전략을 펼쳤고, 자체 캐파 확대 전략도 뒤늦게 시작한 편이다. 캐파 측면에서 오픈AI를 추격하는 발판은 AWS 파트너십이다. AWS Madison과 New Carlisle 데이터센터 확보로 기존 대비 캐파를 2배 이상 확장했다.

최근에는 구글과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브로드컴-앤스로픽 3자 협력 구조를 통해 '27년부터 가동 예정인 차세대 TPU 캐파(수 GW 규모)를 확보했다(브로드컴을 통해 3.5GW). 신규 인프라 대부분은 미국에 구축되며, '25년 11월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 미국 컴퓨팅 인프라 투자 계획의 확장이다.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는 Claude 모델 구동 및 글로벌 수요 대응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가로 구글은 앤스로픽이 임차한 텍사스 데이터센터 캠퍼스 운영사 Nexus Data Centers 대상 건설 대출 지원 및 Fluidstack + TereWulf 딜을 통해 금융 인프라 구조 기반으로 앤스로픽의 캐파 확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격 인상이나 유저 경험 저해가 이어진다면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앤스로픽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임원 출신 Eric Boyd를 인프라 총괄(Head of Infrastructure)로 영입한 것도 본격적인 캐파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이다. 앤스로픽은 멀티 클라우드 전략 기반으로 캐파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의 컴퓨팅 캐파 확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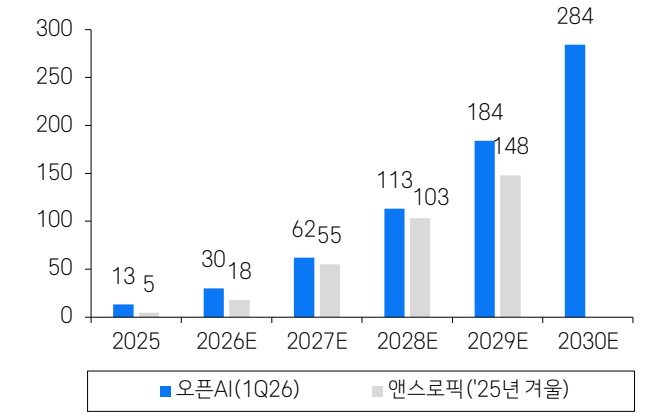
자료: Epoch AI, Peter Gostev(Arena.ai)

앤스로픽 서버 이슈 지속

자료: Claude Status

오픈AI와 앤스로픽의 매출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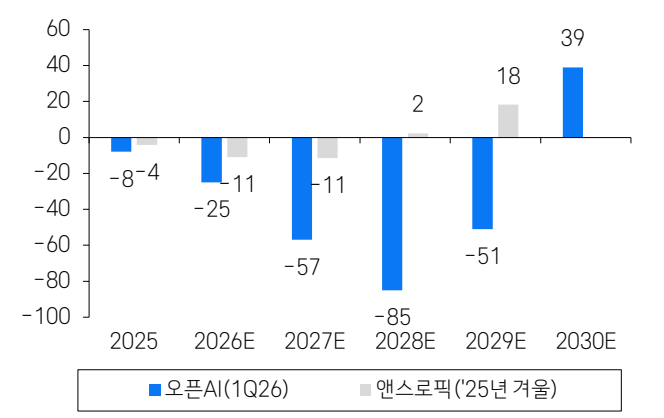
(십억달러)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오픈AI와 앤스로픽의 FCF 전망 비교

(십억달러)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4월 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